

마음의 기술과 저변의 속삭임

October 2024 | 편집부

Page 1 of 1

DESIGN & EXHIBITION

마이클 주(Michael Joo) 개인전



01. Barcelona, 2017, Silvered Epoxy on Canvas, 160.8x118.3cm,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02. Cosmos (Catalunya 1), 2016-2024, Silvered alabaster and Dichroic glass  
Silvered alabaster: 18.5x18.5x14cm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Dichroic glass: 30x30x1.6cm,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03. EP Print (v. 2), 2024, Acrylic piezograph on widetone paper, 145x40cm,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마음의 기술과 저변의 속삭임

국제갤러리는 8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K2에서 마이클 주(Michael Joo)의 개인전 《마음의 기술과 저변의 속삭임》을 선보인다. 예술과 과학의 교차점에서 인식과 정체성, 그리고 경계성에 대해 탐구하는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일상적인 지각 기저에서 이루어지는 교원과 연결, 언어화하기 어려운 영향 관계에 주목한다. 전시 제목 '마음의 기술과 저변의 속삭임'은 이를 시작으로 담아낸 문구로, 표면화되지는 않지만 소곤거리는 듯 작동하는 각종 숨겨진 연결망을 환기하고, 여러 비가시적 관계와 친밀성을 조율하는 이른바 '소프트 스킬(soft skill)'에 주의를 돌린다.

전시장에서 처음 마주하는 유리 패널 산작 시리즈는 공간을 분할하기도, 연결하기도 하는 재료 및 양식에 대한 작가의 오랜 탐구의 결과물이다. 'Revider'라는 제목으로 엮이는 본 연작은 투명한 아크릴과 더불어 빛의 각도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의 색을 띠는 다이크로익(dichroic, 이색성) 유리를 주제로 사용하고 있다. 작품은 그 너머를 투영하는 투명성을 통해 공간 및 사물을 바라보는 시점을 의식하게 하거나, 변화무쌍한 색상의 표면을 통해서 정적인 사물로서의 작품에서 벗어나 감상자 스스로 자신의 위치와 시선을 적극적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다. 작가는 패널을 전시장에 창문이나 벽처럼 세워 두거나 서로 잘라내듯 교차시키면서 (반)투명한 건축적 재료가 공간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다.

전시장 안쪽, 콘크리트 기반에 유리 패널이 끼워진 형태의 작업 'Untied (after LBB)'(2024)는 이탈리아 태생의 브라질 건축가 리나 보 바르디(Lina Bo Bardi, 1914-1992)의 '유리 이젤'에 대한 오마주이다. 리나 보 바르디는 1968년 상파울루미술관의 개관 전시를 위해 유리 이젤을 고안했는데, 이는 콘크리트 큐브에 유리판을 끼우고 그 위에 작품을 부착하는 독특한 디스플레이 방식이었다. 병렬로 늘어선 이젤은 전시장을 흡사 작품의 숲처럼 보이게 하고, 이로써 관람자들은 벽에 걸린 작품이 발산하는 역사적 위엄과 교훈적인 아우라를 전달받는 대신 눈앞에 서 있는 작품과 더 가깝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작가는 유리 이젤이 안과 밖의 경계를 구분하는 이동식 건축이며 질적으로 다른 공간의 열림을 일컫는 경계면이라는 점에 특히 흥미를 느끼고, 이 구조물의 조형미와 개념적 함축을 재조명한다.

전시장 곳곳에 배치된 여덟 개의 'Cosmos (Catalunya 1, 2, 5, 7)'(2016-2024)는 지질과 광물, 장수성과 장소 이동에 대한 탐구로서 이번 전시 전체에 흐르는 고고학적인 맥락을 강조한다. 이 작품에는 스페인 카탈루냐에 있는 퇴적암층에서 추출한 알라베스터(alabaster, 신희 석고) 광석이 사용되었다. 퇴적암층은 그것이 매장된 땅의 모양을 반영하고, 암석층의 긴 광석을 잘라내어 만들어진 각 부분은 그 지역의 땅 전체를 품고 있는 작은 풍경 조각이다. 은과 다이크로익 유리의 반사면을 입은 작품은 '그때 그곳'을 '지금 이곳'의 생동하는 시공간과 연결한다.

전시장 곳곳에 배치된 여덟 개의 'Cosmos (Catalunya 1, 2, 5, 7)'(2016-2024)는 지질과 광물, 장수성과 장소 이동에 대한 탐구로서 이번 전시 전체에 흐르는 고고학적인 맥락을 강조한다. 이 작품에는 스페인 카탈루냐에 있는 퇴적암층에서 추출한 알라베스터(alabaster, 신희 석고) 광석이 사용되었다. 퇴적암층은 그것이 매장된 땅의 모양을 반영하고, 암석층의 긴 광석을 잘라내어 만들어진 각 부분은 그 지역의 땅 전체를 품고 있는 작은 풍경 조각이다. 은과 다이크로익 유리의 반사면을 입은 작품은 '그때 그곳'을 '지금 이곳'의 생동하는 시공간과 연결한다.

